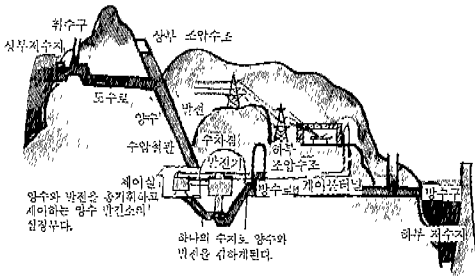


화력발전과 같은 원리이나 연료를 우라늄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 양수발전

수력발전의 일종으로 전력소비가 적은 한밤중에 낮은 곳에 위치한 저수지의 물을 높은 곳에 위치한 저수지로 끌어 올려 저장하였다가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에 발전하는 방식으로 발전설비와 에너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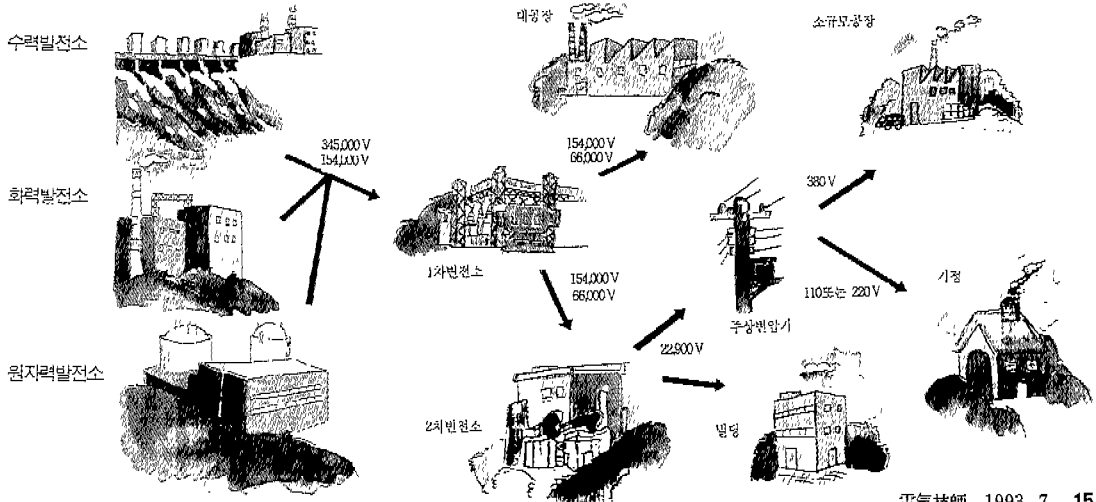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는 청평 양수·삼랑진 양수발전소가 가동중이며 무주에 건설중에 있다.

그외의 발전방식

● 태양열발전

태양열발전은 태양의 열에너지를 집광수열기(集光受熱器)로 집합시켜 그 열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발전방식이다.

일사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건설가능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마라도에서 시험가동중에 있다.



● 풍력발전

바람의 힘으로 풍차를 돌리고 그 풍차에 연결된 발전기를 돌림으로써 전기를 일으키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일정한 방향으로 센 바람이 부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편서풍이 잘 부는 하와이섬 등은 유망한 후보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 설치해 놓고 있다.

● 조력발전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는 발전방식이다.

프랑스의 랑스 조력발전소는 1만kW 발전기 24대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가로림만)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조력발전의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조사와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전기의 공급과정

● 핵융합발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력발전은 원자핵(우라늄)이 분열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것이나 핵융합은 원자핵(중수소)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수소는 바닷물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연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핵융합 발전은 장래가 기대되는 발전방식이나 이것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